



## 천안시,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충청이 앞장서’ 2~4월 5개 테마 44개 기념사업 추진

충남 천안시(시장 구분영)가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다섯 가지 테마로 44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구분영 천안시장은 지역 3·1운동 재조명 등 역사적 의의 계승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 '다시 보고, 함께 기억하고, 과거를 통해 나아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2월부터 4월까지 44개 기념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사업 일환으로 '순국 애국청년인 충남 천안의 유관순' 등 남북합동 추모사업을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에 제안했다.

아울러 뉴욕주 의회가 추진하는 1월 14일 유관순의 날 제정결의안이 통과되면, 뉴욕한인회 및 뉴욕총영사관과 공동으로 오는 3월 1일 뉴욕



구분영 충남 천안시장

시청 앞에서 독립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연다. 이 밖에 청소년과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준비 중이다.

애니메이션 제작 상영, 3·1운동 천안 자유 누리, 유관순 열사 따라 걷기 등 3·1운동 등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연다.

또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을 현 3등급인 독립장에서 상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시장은 "호서지방 최대 독립 만세운동인 아우내 만세운동 발생지역이자 민족 독립의 성지 독립기념관이 위치한 천안시가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